

광주·전남 지역민들 내집 장만 8년이상 걸린다

전남지역 소득 대비 주거비 전국 최고 수준

광주·전남지역은 각 세대주가 가정을 꾸린 뒤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기까지 평균 8년이 넘게 소요되며, 10가구 중 1가구는 '내집 마련'에 무려 20년을 넘게 매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0% 이상을 임대료 및 대출금 등으로 지출하면서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 관련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6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현재 광주·전남의 가구주가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각각 8.19년, 8.71년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총 66만5천729가구 가운데 80.0%(53만2천734가구)가 주택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주택구입 비중은 광주보다 높았다. 하지만 '내집 마련'에 20년 이상 걸린 경우가 전체의 15.6%에 달하면서 가구주의 소득 등에 따른 주택구입기간 격차는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남의 경우 월평균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말 전남의 월평균 소득은 151만6천원으로, 전국 평균(219만9천원)을 크게 밑도는 한편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로 분류됐다.

하지만 전남은 월평균 주거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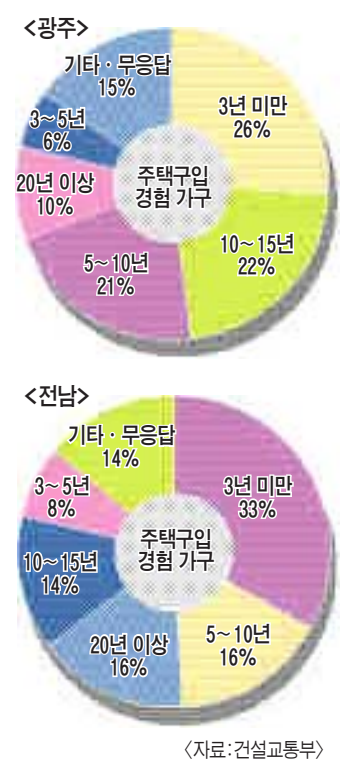
15년이 넘게 걸린 셈이다.

전남은 총 66만5천729가구 가운데 80.0%(53만2천734가구)가 주택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주택구입 비중은 광주보다 높았다. 하지만 '내집 마련'에 20년 이상 걸린 경우가 전체의 15.6%에 달하면서 가구주의 소득 등에 따른 주택구입기간 격차는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남의 경우 월평균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말 전남의 월평균 소득은 151만6천원으로, 전국 평균(219만9천원)을 크게 밑도는 한편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로 분류됐다.

하지만 전남은 월평균 주거비가

■ 광주·전남 최초 주택구입 소요기간 (단위: 가구)



(자료:건설교통부)

15만8천원으로, 소득의 10.4%에 달했다. 이는 소득 대비 주거비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임대료 및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메쉬캡으로 멋 내세요

1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패션스트리트 ASK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여름용으로 나온 메쉬캡을 고르고 있다. 메쉬캡은 모자 뒤가 그물망 형태로 돼 있어 통풍이 잘 되는 것이 장점으로 가격은 개당 3만15천~3만19천원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光銀 상반기 순익 693억

대출 등 20%대 성장

광주은행이 올 상반기 동안 자산·수신·대출·이익 등 거의 전 분야에서 20%대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창립 이래 최고의 경영실적을 거뒀다.

광주은행은 올 상반기 결산결과 총 자산 15조1천330억원에 총수신 11조6천480억원, 총대출 9조1천590억원, 세전이익 941억원(당기 순이익 693억원)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총자산은 2

조7천560억원(22.3%), 총수신은 2조1천810억원(23%), 총대출은 1조5천420억원(20.2%) 늘어난 것이다.

펀드판매의 호조로 수익증권 실적도 1조6천180억원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총자산은 16조7천510억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지역 총수신은 4조4천620억원, 총대출은 2조460억원으로 1년전에 비해 각각 52.4%와 59.4% 급증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대기업 하반기 채용 1만 6000명 이를 뚫

올 하반기 주요 대기업의 채용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한 1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337개사)의 48.5%가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32.1%,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19.4%였다.

연합뉴스

주택대출 수요 둔화에도 금리 상승 정기 적금·상호 부금 금리는 하락

최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데도 변동금리부 주택대출 금리의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의 목돈 마련용이 주류인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의 금리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는 연 5.98~7.38%로 지난달 23일에 비해 0.04%포인트 상승했다. 하나은행도 연 6.20~6.90%로 같은 기간 동안 0.02%포인트 올랐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외환

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는 연 5.99~7.69%, 6.09~7.49%, 6.15~7.30%로 각각 0.01%포인트 상승했다.

이같은 금리 상승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CD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수요가 급감한 시점에 주택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정기적금 금리는 하락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예금은행의 금리는 전월에 비해 0.06%포인트 하락했다.

정필수기자 bungy@

주택대출 금리 무한정 못올린다

이르면 내달 상한제 도입

이르면 9월부터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향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상한선을 뒤편에 둔다.

또 고객에게 금리 변동의 위험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이 변동 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향후 시장 금리에 연동해 대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부터 적용된다.

대출 상품별 금리 상한선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적용한 대출 금리가 6%이면 향후 인상할 수 있는 한도(α)를 정해야 하며 α는 2% 안팎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향후 시장 금리가 크게 오르더라도 대출 금리를 8% 넘게 인상할 수 없다.

연합뉴스

“일자리 알선 청년 취업 늘리겠다”

신임 권영순 광주지방노동청장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알선해 실업률을 최대한 낮추겠습니다.”

1일 취임한 권영순(45) 광주지방노동청장은 “지역에 맞는 고객·현장 중심의 노동정책을 펼치겠다”며 “고용지원센터를 활성화해 청년 취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권 청장은 “노동시장이 양극화

되고, 저성장·노사 관계 불안정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함께 가는 노동 행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곡성 출신인 권 청장은 동신고와 서울대 사회복자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6년 제2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진출해 노동부 노사정책과장, 산재보험혁신팀장 등을 역임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3년 **봉선직영점 오픈성업중**

봉선직영점 173-5279, 봉선직영점 172-5279, 봉선직영점 674-8279

HANIL **한일항공** **항공기-웨리호로**

www.hanilair.com

항공기-웨리호로, 항공기-웨리호로

www.hanilair.com

S the 1 요리학원 **대특강 개강**

맛과 멋이 살아있는 행복한 요리교실! 당신을 초대합니다

www.sthe1.com

(062)385-0723, 384-1984